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사회탐구영역 [윤리와 사상] 분석

1. 출제 경향

① 총평

‘윤리와 사상’ 교과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동·서양 사상가들의 사상, 사회 사상에 관한 내용을 다양한 형식을 활용하여 출제하였다. 동·서양 사상가들의 사상에 대한 이해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난이도와 형태를 다양화하면서 문항을 구성하였기 때문에 학생들이 정답을 쉽게 파악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몇몇 문항은 교육과정을 넘어서지 않을까 할 정도로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기도 하고 있어서 학생들이 문항을 다루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된다. 19번 문항을 제외하고는 기존의 ‘윤리와 사상’의 출제 경향이 비슷하게 유지되었으며, EBS 교재와의 연계성도 높았다. 이번 9월 모의 평가에서는 사상가들의 사상을 비교하는 문항이 비교적 많이 출제되었다. 3명의 사상가들을 비교·판단하는 문항이 2문항에 그쳤지만, 사상가들의 사상적 관점이나 내용의 차이를 깊이 있게 다루어져 체감 난이도가 약간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EBS 교재에서 자료나 지문을 연계하여 출제된 문항이 가장 많았다.

동양과 한국 윤리사상에서는 불교, 도가, 유학 사상과 성리학, 양명학, 한국의 성리학에 관련된 문항들이 출제되었다. ‘윤리와 사상’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사상가들에 관한 문항이 고루 출제되었으며, 성리학과 정약용의 유학 사상을 비교하는 문항이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19번 문항은 순자와 노자의 사상을 비교하는 문항이지만, 좌표를 활용한 문항으로 구성하여 출제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서양 윤리 사상에서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스토아와 에피쿠로스 학파,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 벤담, 흄과 칸트, 키르케고르와 하이데거, 배려 윤리에 대한 내용들이 출제되었다.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사상가들과 그들의 사상이 주로 출제되었으며, 삽화와 그래픽, 퍼즐 등의 형식을 활용하여 문항 출제 형식면에서도 다양성을 기하였다. 서양 사상가들의 사상이 다양하고 심도 있게 출제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이런 내용을 공부하였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데 크게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회사상에서는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공동체주의, 베버의 자본주의 정신, 세계화 시대의 다문화 수용에 대한 문항이 출제되었다. 개념의 비교나 사상의 비교를 통하여 문항을 개발하였지만, 체감 난이도가 높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픽이나 삽화를 활용한 문항이 8문항으로 비교적 많았고, 함답형 문항은 2문항에 그쳐 최선답 위주의 문항으로 구성하면서도 다양한 형식으로 문항이 출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 출제 경향 특징 3가지

- 하나. 여러 사상가들의 핵심 주장 및 개념, 관점을 묻는 문항이 비교적 많이 출제되었다.
- 둘. 삽화와 그래픽 등을 활용하여 형식을 다양화하는 기존의 출제 경향이 유지되었다.
- 셋. EBS 교재와의 체감 연계율이 높은 문항이 다수 출제되었다.

② 파트별 세부 출제 경향

2014 9월 모의평가에서의 출제 경향은 단원별로 동·서양 윤리 사상과 사회사상을 중심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고, 내용 면에서도 교육과정에서의 핵심 사항을 다양한 형식을 활용하여 묻고자 노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동양·한국 윤리 사상에서 7문항이, 서양 윤리 사상에서 8문항이, 사회사상에서 4문항이 출제되었다. 먼저 동양 윤리 사상은 불교, 장자, 이이, 양명학의 단독 제시문을 활용한 문항, 공자와 맹자, 성리학과 정약용, 순자와 노자의 조합 문항 구성으로 동양 사상의 핵심인 유·불·도가 사상을 고르게 분배하여 출제하였고, 그들의 핵심 내용 요소를 다른 사상가와 비교 분석하여 이해하는 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서양 윤리 사상은 사상가의 사상이나 사상적 관점을 심도 있게 평가하려는 점이 특징이다. 흄과 배려윤리에 관련한 문항이 단독 제시문으로 구성된 것을 제외하고 그 외의 문항들은 두 사상가에서 세 사상가의 사상을 조합하여 출제하였다. 고대 그리스(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헬레니즘(에피쿠로스, 스토아), 중세(아우구스티누스, 아퀴나스), 근대의 경험론(흄), 근대와 현대(벤담, 듀이, 칸트), 현대의 실존주의와 배려윤리가 출제되어 서양 사상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도 중요한 학파나 사상가들이 고루 출제되었다.

사회사상은 마르크스 사상과 자본주의 및 프로테스탄티즘의 정신이 출제되어 가장 핵심적 내용을 균형 있게 배분하였다는 느낌이 들고, 그 외의 공동체주의와 세계주의 문항의 출제 도 지금까지의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

문항의 제시문들이나 묻는 형식이 EBS 교재와 충실하게 연계되어 있어 연계 체감율이 다소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험생들에게 다소 세부적인 내용 요소에 대한 생소함이나 어려움이 반감되는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난이도

〈2012년 9월 모의평가/ 2013학년도 수능/ 2013년 6월 모의 평가와의 체감 난이도 비교〉

영역	2012년 9월 모의평가와 비교	2013학년도 수능과 비교	2013년 6월 모의평가와 비교
윤리와 사상	비슷	비슷	약간 쉬움

2014학년도 9월 모의평가는 개정 교육과정 이후 첫 모의평가였던 지난 6월 모의평가에서 수능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 주는 의미가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출제 경향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개정 교육과정 속에서 다룰 수 있는 새로운 내용 요소를 안정적인 형태로 출제하여 수험생들에게 수능에 대한 안내를 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 느낌을 주었다. 따라서 전반적인 난이도 면에서 9월 모의평가는 수험생들이 다소 어렵게 느낄 수 있었으나 6월 모의평가에서 수험생들이 가졌을 부담감이나 생소함이 덜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약간 쉽다고 체감했을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동양 사상은 유·불·도 사상이 골고루 출제되고 있는데 불교 사상은 지금까지의 불교 문항의 특징적인 패턴을 유지하고 있어서 친숙했을 것이고, 도가의 장자 관련 문항 역시 사상의 핵심 요소를 묻고 있다. 다만 5번의 공자와 맹자의 조합 문항은 공자의 사상을 읽어내기가 어렵다고 느꼈을 가능성이 크고, 두 사상가의 각각의 특징과 공통점을 세부적으로 묻고 있어서 지금까지는 까다롭지 않게 출제되지 않았던 이들 사상이 사상에 대해 다소의 어려움을 느꼈을 수도 있다. 그러나 EBS

교재를 충실히 공부한 학생이라면 정확하게 문항을 이해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학과 내의 각 사상가의 특징을 비교·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할 필요가 있다. 또 고난도 문항으로 꼭 출제되는 한국의 성리학은 정약용을 성리학과 조합하여 출제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출제된 문항들과는 다르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9번의 이이 문항은 형식면에서는 EBS 교재와 유사하게 출제되었지만, 짧은 제시문과 선택지 속에서 이이를 찾을 수 있는 힌트가 적어 어려움을 겪은 수험생들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19번의 순자와 노자 사상을 비교·이해하는 문항이 수험생들에게 가장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졌을 것으로 보이는데, 자료 및 지문은 연계율이 높지만 그들의 사상을 새로운 형식의 표 안에 담아 놓은 것은 새로운 시도이다. 이 시도 속에서 각 사상가들의 핵심적 내용 요소를 묻고 있는데, 전체 문항의 막바지 즈음 배치된 새로운 형식의 문항 속에서 얼마나 잘 적응하고 집중력을 발휘하느냐가 관건으로 보인다.

반면 서양 윤리 사상은 평이한 출제 경향을 보인다. 고대 그리스 사상가들, 헬레니즘 사상, 중세사상이 조합, 칸트에 경험적 결과를 중시하는 사상가들의 조합들이 그러하다. 여기에 새로운 사상가를 조합해서 넣거나, 어려운 형식을 시도하기보다는 기존의 전형적인 출제 방식을 따르고 있어서 수험생들이 문제를 풀기가 수월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존주의의 키르케고르 제시문이 다소 세부적이라고 느껴거나 하이데거라는 사상가의 사상이 새롭게 제시되어, 실존주의 전반의 특징을 찾아내는 데에 약간 어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외에는 배려윤리가 새로운 평가 요소로 활용되었는데, 제시문 속에서 배려윤리의 사상적 경향을 보여주고, 문항의 형식 내에서도 그 요소가 드러나기 때문에 문제 풀이 과정에서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사상에서는 마르크스주의의 핵심적이면서도 빈출되었던 내용 요소가 들어있고, 자본주의 사상과 프로테스탄티즘은 형식이 다소 새로울 수도 있으나 내용 요소 면에서 6월 모의평가를 통해 익숙해졌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 외의 공동체주의, 세계주의 문항은 평이하게 출제된 것으로 보이고, 인간의 삶과 윤리 및 사회사상 단원에서 고정적으로 출제되었던 인간의 특성 문항 역시 득점 요소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① 파트별 세부 난이도

9월 모의평가에서 동양과 한국 사상은 비교적 세부적인 내용을 묻는 문항들이 다소 있어서 문제를 푸는 학생들이 다소 어렵게 느껴졌을 것이다. 불교와 도가의 빈출된 내용 요소나 문항 형식면에서는 익숙해져 있어서 무난하게 풀었겠지만, 고정적으로 고난도 문항으로 출제되는 한국 성리학 문항 외에 공자와 맹자 관련 5번 문항이나, 순자와 노자 관련 19번 문항은 제법 난도가 매우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서양 윤리 사상의 경우 눈에 띄는 고난이도의 문항이 출제되지는 않은 것 같지만, 6번 문항의 실존주의 사상가의 제시문이나 선택지에서 약간의 생소함을 느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 11번 문항에서 세 사상가에 다섯 선택지를 모두 적용시켜 풀이하는 과정과 공통점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② 고난도 문제

• 19번 - 제시된 갑, 을 사상가를 파악하기는 어렵지 않다. 갑은 순자, 을은 노자이다. 그러나 (나)의 좌표를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좌표의 가로축과 세로축이 무

엇을 말하는지는 알 수 있겠지만, 좌표의 화살표들을 갑, 을 사상가의 입장과 연결하는 것은 무척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A 지점이 무엇을 말하고, B 지점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형태를 처음으로 접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항을 정확하게 풀 수 있기 위해서는 비슷한 문항을 다루어 보든지, 좌표축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연습을 해야 할 것이다.

• 9번 - (가) 제시문을 파악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지문에서 이이의 사상이라는 것을 파악할 단서가 적었기 때문이다. 또한 한자어를 활용한 표현이 많아서 더욱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가) 사상이 이이의 사상이라는 것만 파악하였다면 <보기>는 제시문만큼 어렵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보기>도 ㄴ과 같은 표현은 어색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문항은 (가) 사상과 흐름도, <보기>의 내용을 종합하여 답을 찾아내야 하기 때문에 깊이 있게 공부한 학생이 아니면 답을 찾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③ 신유형 문제

• 19번 - (가)는 특별히 다른 형식은 아니다. 갑, 을 두 사상가를 비교·파악하는 형태는 전형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의 좌표축은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처음으로 보는 형태이기도 하지만, 좌표축을 파악하고 화살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두 번 이런 유형의 문제를 푼다고 쉽게 대처할 수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좌표축의 이해와 사상의 연결이 쉽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항은 새로운 유형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런 문항이 쉽게 출제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 문항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EBS 교재와의 연계성 분석

① 연계표

문항 번호	EBS 교재 연계 내용		
	교재명	쪽수	문항번호 (내용요소)
4	수능특강 윤리와 사상 수능완성 윤리와 사상	p. 181 p. 125	공산당 선언 5번
5	수능완성 윤리와 사상	p. 27	1번
6	수능특강 윤리와 사상 수능완성 윤리와 사상	p. 147 p. 103	6번 10번
7	수능완성 윤리와 사상	p. 156	14번
9	수능특강 윤리와 사상 수능완성 윤리와 사상	p. 53 p. 164	3번 5번
10	수능완성 윤리와 사상	p. 145	11번
11	수능특강 윤리와 사상 수능완성 윤리와 사상	p. 101 p. 91	4번 1번
12	수능특강 윤리와 사상 수능완성 윤리와 사상	p. 174 p. 116	6번 4번

13	수능특강 윤리와 사상	p. 158	1번
	수능완성 윤리와 사상	p. 109	5번
14	수능특강 윤리와 사상	p. 126	5번
	수능완성 윤리와 사상	p. 83	2번
15	수능완성 윤리와 사상	p. 83	2번
17	수능완성 윤리와 사상	p. 167, p. 26	17번, 왕수인의 사상
18	수능특강 윤리와 사상	p. 99	7번
	수능완성 윤리와 사상	p. 71	9번
19	수능완성 윤리와 사상	p. 28, p. 166	4번, 13번

② 체감 연계도

윤리와 사상에서 출제한 20문항 중 EBS 수능 특강에서 14문항을 연계하여 출제하였으며 연계율은 70%이다. 연계 유형도 EBS 수능 특강 문항의 자료 및 지문 활용, 문항 변형유형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학생들의 체감 연계도는 매우 높았을 것이다.

③ 연계유형별 세부 분석

(1) 개념/원리 활용

- 대표 문항 : 6번, 7번, 15번, 17번

개념/원리 활용의 경우 6번, 7번, 15번, 17번 4개가 출제되었다. 6번 문항은 키르케고르의 실존주의 제시문을 바탕으로 하이데거와의 공통점을 추론할 수 있는지를, 7번 문항은 정약용의 성기호설을 바탕으로 성리학과의 공통점을 찾아낼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15번 문항은 <문제 상황>을 활용하여 벤담, 듀이, 칸트의 사상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형식으로 출제하였다. 17번 문항은 왕양명의 격물치지론을 활용하여 양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다.

(2) 자료/지문 활용

- 대표 문항 : 5번, 10번, 11번, 13번, 18번, 19번



자료/지문 활용 5번, 10번, 11번, 13번, 18번, 19번 문항 4개가 출제되었다. 5번 문항의 경우 공자의 제시문을 활용하여 맹자와의 사상적 특징과 비교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10번 문항은 흄의 사상을 활용하여 퍼즐 형태를 그대로 사용한 채 내용만을 변경하여 만든 문항이다. 흄의 사상을 이해하는지를 묻고 있다. 11번 문항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지식과 실천의 문제를 비교하는 문항으로 삽화 형식을 그대로 사용하여 출제하였다. 13번 문항은 배려의 윤리를 묻고 있다. EBS 수능특강, 수능완성을 활용하여 문항을 구성하였지만 내용이 아니라 사상가를 묻고 있어 학생들이 많은 혼란을 겪었을 것이다. 18번 문항은 에피쿠로스의 자료를 거의 그대로 활용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 하지만 (나)의 형식을 파격적으로 변화시켰기 때문에 푸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문항의 축소/ 확대/ 변형

- 대표 문항 : 4번, 9번, 12번, 14번

4번, 9번, 12번, 14번의 4문항이 문항의 축소, 확대, 변형되어 출제되었다. 4번 문항은 마르쿠스의 사상을 제시문을 그대로 활용하고 자료를 변형하여 문항으로 개발하였다. 9번 문항은 형식을 그대로 활용하였지만 이이의 사상을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료가 변형되었기 때문에 이이의 사상을 파악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12번 문항은 제시문이 잘 활용되어 있어서 비교적 쉽고 느꼈을 문항이다. 14번 문항은 수능특강과 수능완성에서 각각 하나의 자료를 결합하고 실용주의자 듀이 사상을 결합하여 만든 문항이다. 듀이 사상이 결합되기는 하였지만 내용이나 형식이 유사해서 푸는 데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4. 대표 연계 문항

9월 모의평가 문항 11번	EBS 수능 완성 91쪽 1번
<p>11. 고대 서양 사상가 가, 음, 병의 입장에서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한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p>  <p>가: 좋은 것만을 아는 것이 참된 삶이다. 좋은 것을 알면서도 이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p> <p>음: 좋은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의지가 나약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좋은 행위를 반복하여 습관화해야 한다.</p> <p>병: 좋은 것을 진정으로 알기 위해서는 모든 좋은 것들의 참된 실재를 알아야 한다. 좋은 것들은 그것을 알아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p> <p>① 정의는 감정과 육구의 제약을 통해 실현되는가? ② 무지로 인한 악한 행동의 가능성을 부정하는가? ③ 선(善)에 대한 완전 기준이 현실 속에 존재하는가? ④ 선에 관한 지식은 유덕한 행위의 필수적 조건인가? ⑤ 덕(德)은 지적인 덕과 도덕적인 덕으로 구분되는가?</p> <p>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나, 르 ⑤ 다, 르</p>	<p>01. —</p> <p>그림은 고대 서양 사상가들의 가장 대표하다. 가, 음, 병에 대한 올바른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p>  <p>가: 모든 것은 13에서 나오므로 영혼의 수반을 통한 계몽을 통해 덕을 쌓아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p> <p>음: 모든 행위를 무조건 반복하고 습관화해야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p> <p>병: 인간은 질서와 용이 한 지혜가 조화를 이룰 때 정의의 덕이 실현되고 행복한 삶이 가능합니다.</p> <p>가 보기 나 가. 같은 이상의 역할과 함께 실천 의지를 강조하였다. 나. 음은 덕을 지적인 측면과 도덕적인 측면으로 구분하였다. 다. 가와 병은 모든 덕이 참된 삶에서 나온다고 주장하였다. 르. 음과 병은 현실 세계에서 참다운 존재를 찾고자 하였다.</p> <p>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나, 르 ⑤ 다, 르</p>

[문항변형] 앞과 실천에 관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적 차이를 묻는 문항이다. 삽화를 이용하는 방식을 그대로 활용하고, 말풍선에 들어가는 내용도 거의 유사하여 EBS 교재와 충실하게 연계되었다고 느꼈을 문항이다. 선택지 구성에 변화를 주었기 때문에 충실히 연계하면서도 새로운 문항으로 만들어졌다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문항이다.